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 14:14)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질문이다. 죽으면 그만이고 몸이 썩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장사 된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고전 15:23),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요 11:25)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셨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전 15:35)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부활한 몸의 특징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사르밧 과부 아들(왕상 17:17-24), 수넴 여인의 아들(왕하 4:17-27), 야이로의 딸(막 5:22-43), 나인 성의 청년(눅 7:11-17), 나사로(요 11:17-44), 여 제자 다비다(행 9:36-43), 유두고(행 20:7-12) 등이 죽었다가 살았으나 소생했을 뿐 부활의 몸은 아니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은 특징이 있다.

(1) 지금 몸과 다른 변화 된 살과 뼈를 가진 몸이다.(눅 24:29-40)

어떤 불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같이 예수님의 출현이 영의 출현이거나,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 자국을 보이시며 손가락을 내밀어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다.(요 20:25-27)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다.(마 28:9) 또 부활한 몸은 부활체를 가졌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다.(눅 24:41-45)

영(靈)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어릴 때의 경험에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 유교 관습대로 조상의 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부모님이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 후에 숟가락을 꽂아놓고 조상의 영이 와서 음식을 잡수시도록 자손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한참 후에 방으로 돌아와 호기심어린 눈으로 없어진 음식이 있는 가 살펴보니 밥과 국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대로였다.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깊은 연관성이 있다. 도토리가 자라서 참나무가 되고, 갓난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때 동일한 물질에서 발전하지만 그 형태가 같지 않다. 도토리와 나무, 아이와 어른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계속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없는 것 같이 현재의 육체와 부활의 몸은 계속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한 일이나(요 20:14,15),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길에서 동행하게 된 예수님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눅 24:16)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모여 있던 다락방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할 정도로(눅 24:37)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변해있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것이나 부활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고전 15:49) 지금 우리의 몸은 썩고 욕된 약한 몸이지만 부활 때에 갖게 될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이 될 것이니 곧 신령한 몸이다.(고전 15:42-44)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가지시게 될 영광스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 부른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 17:2)

(2)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생한다.

부활한 몸이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을 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마 22:30) 닫힌 방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며(요 20:19), 동행 중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눅 24:31) 몸이 부활의 몸이다. 가고 싶은 곳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원할 때 즉시 사라지는 부활체는 현재 우리 육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과 다르다. 출근 길에 또는 중요한 약속 자리에 시간을 대기 어려워 조바심하며 차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일도 부활의 몸을 가질 때는 없어질 것이다. 고칠 수없는 병에 걸려 고통 하는 일도,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뺏기고 통곡하는 일도 부활 이후엔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를 받을 것이니(고전 15:51,52) 성도들의 몸이 구속을 받는 복되고 소망스런 날이 될 것이다.(롬 8: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2. 부활에 대한 실제적 증거

(1)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언되었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눅 18:31-33)

(2)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 28: 2-6)

(3)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부활의 증거다. 1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7-39)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을 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셨다.

(1) 막달라 마리아에게(막 16:9)
(2) 여인들에게(마 28:9)
(3) 베드로에게(고전 15:5)
(4) 두 제자에게(눅 24:15-31)
(5) 열 제자에게(요 20:19)
(6) 도마에게(요 20:26-28)
(7) 일곱 제자에게(요 21:1-24)
(8) 열 한 제자에게(마 28:16,17)
(9) 500명에게(고전 15:6)
(10) 열 한 사도에게(행 1:2-9)
(11) 야고보에게(고전 15:7)
(12) 바울에게(행 9:1-5, 고전 15:8)

(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의 증거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쓰니라."(행 2:38-42)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리라는 그의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다.(*)